

## 학문은 수행이 되고, 수행은 다시 세계로 나아간다

— 일산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 —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소신학교小神學校와 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하며 신부의 길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을 둘러싼 철학적 물음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오랜 사유 끝에 불교로 방향을 틀었고, 1987년 송광사에서 출가했다. 그것은 이전의 길을 버린 단절이라기보다 더 깊은 물음을 따라간 선택이었다.

출가 이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후학을 길러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연구와 집필을 이어가면서 고양 원각사 주지로 수행과 포교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 가톨릭 신학생에서 불교 수행자로 삶의 방향을 바꾼 이는 바로 정각 스님이다. 수행과 학문, 전통과 현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스님의 시선에는 삶의 전환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다.



글 · 성조

정각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옮겨 가든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는 점이었다. “왜 한국 불교에는 이렇게 많은 단절이 생겼는가, 그리고 그 단절을 어떻게 다시 이어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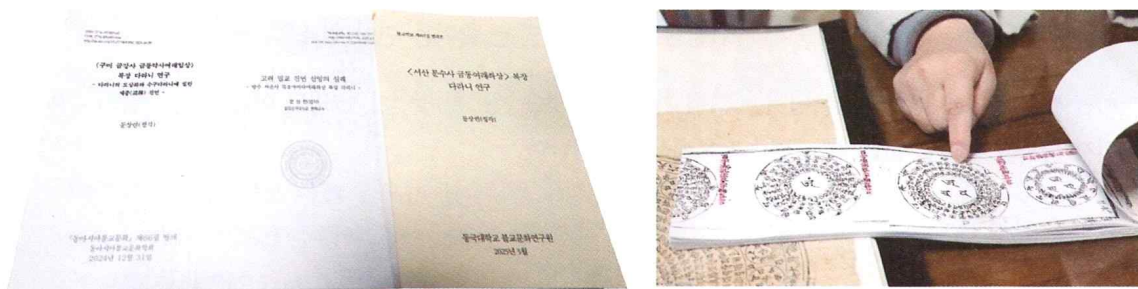
스님은 수행자이자 학자이고, 연구자인 동시에 현장을 떠나지 않는 실천가다. 불상의 복장(腹藏)에서 나온 다라니(陀羅尼). 범자(梵字)로 쓰인 진언, 번역되지 않은 경전, 고지도와 문화재까지, 겉으로 보면 제각각인 듯한 이 유물들이, 스님을 만나면 모두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불교가 축적해 온 지식과 수행의 층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끊어졌는지를 밝히고, 그것을 다시 현재로 연결하는 일이다.

### 단절의 흔적, 다라니 연구에서 드러나다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고려시대 불상의 복장에서 나온 다라니입니다. 복장 유물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포함된 범자 다라니는 난해하다는 이유로 거의 연구되지 않았어요. 범자를 읽을 수 있는 이도 드물고, 설령 읽더라도 그 구조와 의미, 의례적 맥락까지 분석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연구가 안 된 이유는 간단해요.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정각 스님은 이 ‘어렵고 손이 안 가는 영역’을 수년간 홀로 파고들었다. 범자 하나하나를 대조하고, 출전을 찾고, 배열 구조를 분석하며, 의례적 맥락을 정리했다.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이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원고까지 더하면 상당한 분량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 작업의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주제를 개척했다는 데 있지 않다. 고려 불교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고도의 교학적·의례적 체계를 갖춘 전통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라니에 관한 학술 논문들

“다라니를 미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다라니는 대개 뜻을 묻지 않은 채 외우는 대상으로 남아 있다. 신비로운 언어로 여겨지지만, 왜 외우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스님의 설명은 달랐다. 다라니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의미와 수행법이 결합된 언어였다. 입으로는 다라니를 염송하고, 몸으로는 수인을 맺으며, 마음으로는 글자와 의미를 관하는 수행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실천이 된다는 것이다.



1



2

“뜻을 모른 채 외우라는 말은, 사실 몰라서 그렇게 설명해 온 겁니다. 어떤 글자를 어떻게 관하고, 어떤 수인을 맺으며, 어떤 사유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전과 논서에 비교적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경전, 부족한 연구 인력, 축적되지 못한 해석 전통, 그 결과 진언과 달라나는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았고, 수행은 점차 기복적 방향으로 기울었다. 정각 스님이 범어와 팔리어, 티베트어를 독학하며 번역에 매달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 번역하고 정리해 놓아야, 다음 사람이 그 위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의 단절, 승과 연구로 이어지다

이 문제의식은 조선시대 승과제도 연구로도 확장된다. 스님의 대표 저작 가운데 하나인 『조선시대 승과 연구』 역시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승과는 단순한 시험제도가 아니라, 당시 승려 집단의 사회적 위상과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조선 초기까지 승려가 될 수 있었던 이들은 사회 최상층의 엘리트였습니다. 출가 자체가 쉽지 않았고, 그만큼 간절함과 지적 축적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승가교육은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인해 그 밀도가 약해졌다고 봅니다. 출가가 쉬워진 만큼, 간절함은 줄어든 면이 있죠.”

비판이라기보다, 다시 질문을 던지는 말에 가깝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수행자이자 학자를 길러낼 것인가? 단절은 제도에서도 드러난다.

### 물질문화 속에 남은 수행의 흔적

정각 스님에게 불교 미술과 문화재 연구는 부수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불교 사상과 수행이 물질문화로 구현된 또 하나의 언어다. 불상, 불화, 공예, 고문헌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사유와 수행의 응축된 결과물이다. 스님은 자신이 수집해 온 불교문화재를 대학에 기증했고, 고지도를 통해 독도와 동해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를 열었다. 불교 연구는 여기서 사회적 역사 인식과 만난다. 단절을 복원하는 작업은 학문에만 머물지 않는다.

“찾으려고 하면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죠.”

이 말은 학문뿐 아니라 수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깨달음은 멈춤이 아니라 움직임

이처럼 여러 분야로 확장되는 연구는 스님의 수행관과도 맞닿아 있다.

"깨달음을 어떤 완성된 상태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깨달음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듬질하는 거죠. 깨달음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여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강원에서의 공부, 인도 유학, 박사과정과 미술사 연구, 그리고 다라니와 불복장, 고지도 연구까지... 스님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됐다."라고 멈춘 적이 없다.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았고, 공부는 계속 이어졌다.

### 수행과 학문은 갈라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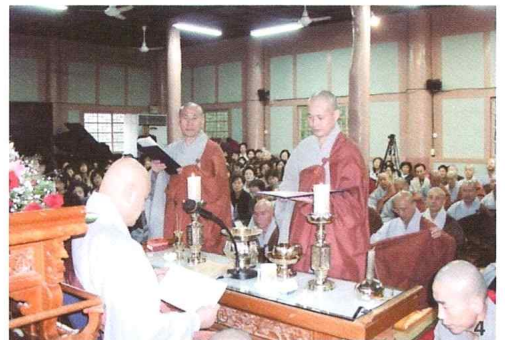
학인스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문자, 스님은 짧게 답했다.

"지향점은 달라도 괜찮아요. 각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루 열 시간 이상을 공부와 집필에 매진하며 수십 년간 연구를 이어온 수행자의 말이다.

"수행과 학문을 따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 축적하는 태도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렇게 쌓인 공부가 결국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각 스님의 공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라니 연구가 정리되면 조선시대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미답의 영역으로 나아갈 것이다. 느리고 집요한 걸음으로 단절의 지점을 밝히고,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 그 길은 지금 한국불교가 회복해야 할 '공부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학문은 수행이 되고, 수행은 다시 세계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연결의 자리에서, 끊어졌던 전통은 다시 숨을 쉰다. **素亨**



- 01 인도 성지순례(1990.12)
- 02 송광사 강원 치문반대, 화엄사 순례
- 03 통도사 강원 졸업(1991.2)
- 04 범어사 전강식(2004.10.20)
- 05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 동북아 국제세미나, 일본 요코하마 (2016.9)

\*사진출처 : 원각사 홈페이지